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20주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041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Tel. 02-734-7070 | Fax. 02-734-8770 | ksmseoul@ksm.or.kr | www.ksm.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 NGO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입니다

2016
여름호 Vol.89

www.ksm.or.kr
www.facebook.com/ksmseoul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Special Them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0년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물길을 트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대화와 협력의 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목차_Contents

- 03 권두언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 04 화 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20주년 기념식>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해의 여정
- 06 특 집 스무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해의 여정>
- 08 기 고 36년만의 당대회와 그 후
- 10 인터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징에 담긴 의미는?
-상징물 제작한 추은식 교수 인터뷰
- 12 사업보고1 어린이평화축구교실에서 평화를 만나고 있습니다
- 14 사업보고2 영길현 소학교 네모상자 개관식
- 16 사업보고3 책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를 알리다
- 18 사업보고4 인턴후기
- 20 우리함께 영화<우리학교>
- 22 사업일지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23 후원자 명단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발행인 명단,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편집인 강영식 발행일 2016년 6월 주소 (041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전화 02) 734-7070 팩스 02) 734-8770 메일 ksmseoul@ksm.or.kr 홈페이지 www.ksm.or.kr 디자인 및 인쇄 마디커뮤니케이션(02-488-3002)

고문 김성훈, 박경조, 서영훈 상임공동대표 명단,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공동대표 길정우, 김문찬, 김병준, 김세영, 김영수, 김필건, 무원, 박남수, 박준영, 손진우, 우희중, 원혜영, 이수구, 이수덕, 이용선, 이재술, 이흥우, 전정희, 정석주, 중호, 천정배, 최남섭, 최대석, 홍창진 감사 김영환, 전성 사무총장 강영식 홍보편집위원장 김효정

권두언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북녘 동포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순수한 동포애의 정신에 기반하여 20년 전인 1996년 6월 21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으로부터 정확히 스무 해가 되는 지난 6월 21일 창립 20주년과 함께 '20년 백서-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 해의 여정' 발간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20주년 기념식에는 임원 및 후원회원, 그리고 각계에서 오신 350여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창립 20주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면으로나마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른 숏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쉽 없이 민족의 화해와 남북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지원 사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지난 20여년간의 남북관계사에서 우리는 대북 인도지원 사업과 개발협력 사업이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의 문을 열고 그 동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립과 갈등뿐이었던 민족에게 화해와 평화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0년은 감히 우리 사회의 나눔, 평화의 정신과 함께 성장해 온 스무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작금의 남북관계는 과거 냉전시대를 떠 올릴 만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남북 간의 최소한의 교류와 협력 사업 자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나눔과 평화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일 자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년의 활동 경험을 통해서 북한을 그저 단순한 지원의 대상으로만 간주해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공감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인도지원 사업 이라고 해도 남북관계의 특성상 대북 지원 사업은 일정 부분 국내 정치상황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추진 해 온 대북지원 사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의 틀 속에서 부상과 침체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의 특성상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간 지원 단체의 독자적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북지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와 동포애라는 보다 큰 틀 속에 정치를 포함시키는 정치과정을 시민사회 주도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별히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한 '20년 백서 -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 해의 여정'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난 20년간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진솔한 기록이자 성찰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20년 백서를 발간하면서 지난 몇 년간 이리저리한 핑계로 우리 단체가 설정 해 온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대북지원에 대한 보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악화 된 남북관계의 해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를 되돌아 보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다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년간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해준 북측 관계기관과 수많은 지원현장의 북녘 동포들,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재외동포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은 여전히 우리들의 몫입니다. 2016년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남은 절반의 기간동안에는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대북 지원의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6년 6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20주년 기념식



20 YEARS
KOREAN SHARING
MOVEMENT
2016.6.21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20주년 기념식 나눔과 평화의길, 그 스무해의 여정



20주년 기념사_ 최완규 공동대표



회고사 최창무 초대 상임대표



사무처 합창_bravo, my life



축사_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감사인사_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우리민족이 기억하는 사람 감사패_이종무 소장



영상상영

스무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해의 여정

지난 6월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원과 후원자, 남북교류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
그리고 지난 20년간 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남북교류의 현장을 누볐던 분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길

기념식은 고 강원룡 목사님의 생전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최완규 상임공동대표의 기념사와 안철수 국민의 당 상임공동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축사는 이구동성으로 남북관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독점보다는 당국과 민간차원을 분리하여 두 갈래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민간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특별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년이 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제 일반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가 됐다”고 치하하고는 “대북지원 사업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지킨 것

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며 격려 해주었습니다.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도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벌려 온데 대해 잊지않고 있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초대 상임대표이자 전 천주교광주대교구장이었던 최창무 대주교는 회고사에서 19년 전인 1997년 63 빌딩에서 개최, 북녘돕기운동의 기폭제가 된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 인사 옥수수 만찬’을 회고하고는 “대북지원 사업은 민족 전체의 문제이기에 모두 나서야 한다”면서 “나는 나이가 있어 기도로 나설 테니 여러분들도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함께 떠먹을 주걱

이날 모든 참석자에게는 주걱을 선물했습니다. 북한의 묘향산 나무로 만든 주걱입니다.
인명진 상임공동대표는 주걱을 나누며 이렇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길
‘밥은 같이 먹어야 밥이다.’
남과 북이 함께 둘러앉아 이 주걱으로 같이 밥을 떠먹는 날을 꿈꾸며.

20년 백서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해의 여정>

이날은 20년 백서발간식도 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6년 창립20주년을 맞이하여 20년 활동 백서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해의 여정>을 발간하였습니다. 최완규 상임공동대표를 발간위원장으로 하여 최대석 이용선 공동대표, 김보근 문경연 김동진 정책연구위원이 발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수고해주었습니다. 백서는 총론, 부문별사업소개, 부록 등으로 구분하여 총 579쪽에 걸쳐 지난 20년간의 사업활동과 참여자, 후원자들,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해의 여정> 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처(02-734-707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서의 PDF 파일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기억하는 사람 기념패 증정



추응식 신구대 교수, 오귀환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박석양 전 경기도남북협력 팀장,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삼 조선족상조회 대표, 김일천 전 지도위원, 김금순 이호준 후원자 등 여덟분에게 우리민족이 기억하는 사람 기념패를 증정했습니다. 특히 김금순님은 1996년 창립부터 후원자로 참여하여 20년동안 매달 후원하고 있으며 지금은 아들인 이호준씨도 함께 참여하여 가족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36년만의 당대회와 그 후

정영철 교수_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내외의 지대한 관심 속에 치러졌던 당대회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당대회의 관심은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질 것인가였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대로 당대회에서는 별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우리 언론은 당대회가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평가한다.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아무런 내용도 없고, 구체적인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당대회는 원래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자리가 아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려 '36년'만에 열린 당대회 그 자체이다.

당-국가체제의 정상화와 김정은 시대의 개막

이번의 당대회가 갖는 의미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그간 비정상적인 혹은 위기 속에서 당-국가체제가 운영되어 왔다면, 이번의 당대회는 이런 비정상성을 청산하고 당-국가체제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2010년과 2012년의 두 번에 걸친 당대표자회가 김정은의 후계자 결정과 권력 승계의 공식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의 제7차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정상화에 기초한 김정은 시대의 개막인 것이다. 둘째, 당의 정상화 및 기층조직까지의 재정립을 의미한다.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층 당조직에서부터 광범위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기층-중

양'까지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 과정을 통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당의 유일사상체제의 확립과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곧 김정은의 노동당의 장악이 확고해지며 동시에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당대회에서 채택될 새로운 노선과 전략은 김정은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담는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선포인 것이다.

과학기술에 근거한 경제강국 건설에 주목해야

많은 언론에서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명확히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충실히 지킬 것임을 선포하였다. 많은 언론이 이를 근거로 이번 당대회의 모든 초점을 핵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핵문제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드러난 의제의 하나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당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당, 핵, 경제 그리고 통일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박 2일에 걸친 사업총화와 그에 기초한 결정서는 당의 최고 강령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사회주의 강국' - '사회주의 완전승리'라는 어찌면 고전적인 명제를 다시금 꺼내어 들었다. 그리고 5대 과제로서 '온 사회의 김

일성-김정일주의화'에 이어, 과학기술강국건설, 경제강국건설, 문명강국건설, 정치군사적위력의 강화를 언급하였다. 주목할 것은 5대과제에서 강국건설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이 경제, 문명, 정치군사적 위력보다 앞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강국 건설은 5대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경제강국 건설은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건설을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국가적인 자원을 투여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박봉주 내각 총리가 중앙군사위원회에도 포진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군수기술 혹은 군수산업의 민수로의 이전(spin-off)이나 자원배분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남북관계에서도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2012년 4월 15일의 김정은 연설에서도 나타났듯이,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건설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환경 즉, 안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병진노선은 이러한 '안보-발전'의 딜레마에서 김정은 체제가 선택한 전략적 노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의 당대회에서 통일, 대외 분야에서 자신들의 원칙과 함께 '평화'를 의제로 하는 남북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이번의 당대회를 통해 '평화'의제를 부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의 당대회를 통해 우리 언론이 그토록 떠들썩하게 주장했던 '핵보유국' 북한의 단면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경제'와 '평화'의 문제에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당대회 그 이후

앞으로 당대회의 결정이 정책화되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그 과정이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당대회의 분위기를 이어 '200일 전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남북 군사회담을 각 분야의 주요 북한 인사들이 계속해서 제안하는 등 대남 평화공세를 시작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이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적도기니 방문,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베트남, 라오스 방문 등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당대회에서의 경제건설, 남북대화, 대외관계의 개선 등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다. 물론, 그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때때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 이번의 당대회가 '당-국가체제'의 정상화,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인민생활의 향상' 그리고 이번의 당대회에서 천명한 과학기술이라는 선차적 목표에 기반한 기본전선으로서 '경제강국 건설'이 하나로 이어져서 나타날 모습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선비핵화'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의 '제재 국면'의 지속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회담에 '진정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며, 주변국 혹은 저 멀리의 외국까지 끌어들여 '북한 고립화'에 거의 대부분의 외교적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당분간 남북의 접점은 찾기가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한 번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핵문제 이외에 남북한간에 해야 할 일은 진정 없는 것일까?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이 마주앉아야 하지 않을까? 사실, 남북의 회담의제에 '핵'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논리를 따르다 하더라도, 북한에 '선비핵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의한 회담 - 군사회담이라면 더더욱 - 에 마주앉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문제'를 마땅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이라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북간에는 '핵문제' 이외에도 장기적인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다. 오로지 '핵문제'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징에 담긴 의미는?

상징물 제작한 추응식 교수 인터뷰

손종도 부장_기획홍보팀



더 확대돼야 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뜻과 의미

여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상징물이 있다. 1996년 창립 이후 지난 20년 동안 남에서는 북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나타내는 표지 구실을 해 왔다. 상징물은 얼핏 보기만 해도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길 바란다는 목적으로 창립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바람을 직관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상징물이 나타내고 있는 뜻은 이게 다일까?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 혹은 창립 2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뜻과 의미를 더 확대해야 한다면 그 시작을 상징물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돌이켜 보면 매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상징물을 대하면 서도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지난 6월 3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신구대학교를 찾은 이유다. 20년 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상징물을 제작한 추응식 교수를 만났다. 추응식 교수는 1990년부터 신구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20년 전, 그러니까 1996년 초반이겠네요. 어떤 계기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상징을 제작하게 된 건가요?

▷ 당시 서경석 목사님의 부탁을 받았지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는 범국민 연대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 단체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서목사님이 소탈하고 편하게 말씀을 주셔서 가벼운 생각으로 제작을 했지요.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상징물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어떤 제품이라도 브랜드에는 그 제품의 특성이 있어요. 처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는 단체 이름을 듣고 키워드가 무엇일까 고민했지요. 저는 '서로돕기'라는 표현에 주목을 했어요. 20년 전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 수직적 위계질서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인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는 이름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는, 상당히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이 말은 적어도 기관이나 집단 사이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말은 아닌 것으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일상어라고 할 수 있지요. 저는 또 '서로돕기'라는 말이 수직이 아닌 수평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았

어요. 90년대 중반 시기를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가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서로돕기'라는 표현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던 말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징물 제작의 중심 개념을 '서로돕기'에 두고 이 말이 일상용어이고 수평적 개념을 가지며 그래서 '실질적', '실천적', '구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이고 실천적이라는 말은 일의 투명성도 담보한다고 생각했고, '서로돕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단체의 의도는 '공유'와 '탈권위', '함께 하자'일 것으로 판단을 했지요.

▶ 우와! 로고나 상징물 제작에는 엄청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네요.

▷ 그렇지요?(웃음) 이야기거리가 더 있어요. '서로 돕는다'고 했을 때 '돕는다'는 행위에는 돕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게 마련이지요. 누구를 돕고 무엇을 돕는다고 했을 때 저는 결국 '사람을 돕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돕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가는 것이라는 거죠. 서로돕기는 또 집단성보다는 개별성이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에 더해 돕는다는 데에는 당위성이라는 측면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민족이 서로 돕는 행위를 통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상징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더불어 어떤 기업이든 단체든 하나

의 상징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징물을 이루는 요소들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요?

▷ 상징물을 보면 우선 동그라미 두 개가 있지요? 이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몸통 안의 한반도 모양은 지원의 당위적인 측면을 생각했는데, 사람이 한반도를 품고 있는 것이네요. 제가 보기에 민족이라는 것도 인류 보편적인 것이네요. 배타적인 의미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상징을 보면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두 사람은 채워져 있고 한반도는 비워져 있어요. 민족이나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안을 비웠고 결국 이를 채우는 것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색은 녹색인데, 보통 녹색은 생명과 자연의 색을 의미합니다."

'우리민족이 기억하는 사람' 추응식 교수

추응식 교수는 시각 디자인 전공으로 정치 홍보와 기업 홍보, 마케팅 분야가 주된 관심사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다수 기업들의 로고 제작에 관여해 왔다. 기독교인인 그는 '세상 교회'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섬김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교역자 중심의 교회에서 공동체적 평신도 중심 교회'로 발돋움하려 하는 새길교회의 지향이 그의 말 한마디 한 마디에 녹아 있었다. 추응식 교수가 요즘 힘을 기울이는 곳은 '사회적 협동조합 착한장터'이다. 착한장터 홈페이지(www.goodmarket.or.kr)에 따르면, "중고용품과 조합원의 재능 기부, 그리고 조합 자체의 고용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하고, 조합원들끼리는 중고용품의 교환을 넘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서로 돕는 진정한 도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추응식 교수와의 대화는 2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2시간 내내 웃음과 감탄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는 곧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어졌다. 홍보 전문가로 민간단체의 홍보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은 추교수는 성찰과 소통이 부족한 우리 사회를 아파하는 이 시대의 지식인이기도 했다. 그러한 고민과 깊이가 결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상징물을 만들어낸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6월 21일 열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민족이 기억하는 사람' 기념패를 추교수님께 드렸다.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에서 평화를 만납니다

하얀 도화지처럼 순수하고 착한 어린이들이 어린이평화축구교실을 통해 북한에 대해 생각하고 평화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다. 이번 6기에서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늘렸다. 어린이평화축구교실에서 배운 평화가치를 생활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시작한 일상의 평화가 곧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양두리 간사 _ 정책팀

지난 4월 9일 서울에서 열린 어린이평화축구교실 6기의 첫 수업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수강했던 친구들이 친구와, 혹은 동생과 함께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친구나 동생을 데리고 올만큼 수업이 즐거웠구나'하는 생각에 기쁘고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되었던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트레이닝'을 통해 평화축구 1급 코치 자격증을 취득하신 참가자께서 이번에는 아들을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간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축구가 점점 알려지고 있어 참 뿌듯합니다.

6기에서는 프로그램에 살짝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에는 첫째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제외하면 축구기술과 게임을 위주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반면, 이번 수업에서는 매주 수업의 시작마다 서너장의 사진과 함께 평화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수들이 싸우는 사진, 굶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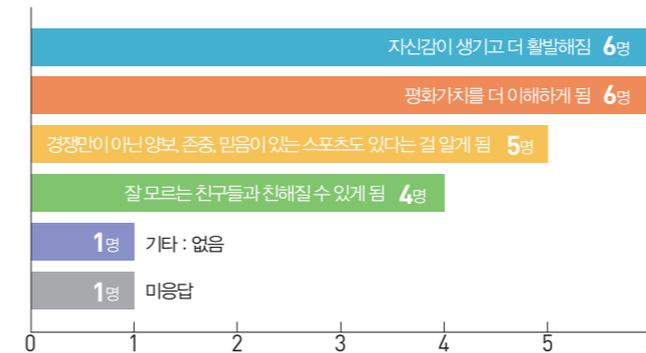
는 아이들의 사진, 넘어진 북한 축구선수를 걱정하는 남한 축구선수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평화'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평화축구의 가치인 '존중', '공평과 포용', '믿음', '책임감'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어린이의 사진이나 이산가족 상봉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남과 북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예정 코치가 "북한에 가봤던 사람~"하고 물었을 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처 코치진들이 모두 손을 들자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물었습니다. "탈북자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남한 사람이 북한에 다녀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개성에서 만났던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남과 북의 단절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어린이평화축구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평화가치를 체득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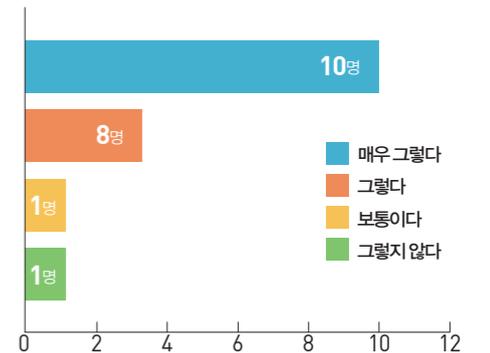


[6기 참가 어린이 설문 결과]

Q1 평화축구교실을 통해 달라진 점은?



Q2 친구에게 평화축구교실을 추천해 줄 의향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어린이 평화축구교실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트레이닝 프로그램은 2015년 서울시 지원사업 평가에서 'S(탁월)'을 받았고(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체 지원사업 중에서 1등을 했다고 하네요), 2016년에도 작년에 이어 2년째 서울시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진행된 어린이평화축구교실 6기에 이어 7월 말에는 제2회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 트레이닝이, 하반기에는 어린이평화축구교실 7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축구를 알리기 위해 평화축구 홈페이지도 오픈했습니다. (www.f4pkorea.org) 앞으로 평화축구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미래를 주셨습니까?

강지현 간사_ 기획홍보팀



네모상자 도서관 꿈인지 생시인지!

12번째 네모상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 139명의 학생들에게 우리말로 공부하고 꿈을 꿀 수 있는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는 중국 동북 3성의 길림성 길림 시내 서남쪽에 있는 영길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발 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글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해서 얼굴을 꼬집어보았는데 진짜였어요” 영길현 소학교 림호준 학생의 감사편지 내용입니다. 스스로 얼굴을 꼬집어 볼 정도로 학생들에게 설레이는 기쁨을 주는 네모상자 도서관입니다.



책은 인류진보의 계단이다

“책은 인류진보의 계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도서관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미래를 주셨습니까?

-영길현 조선족 소학교 반혜영 학생 편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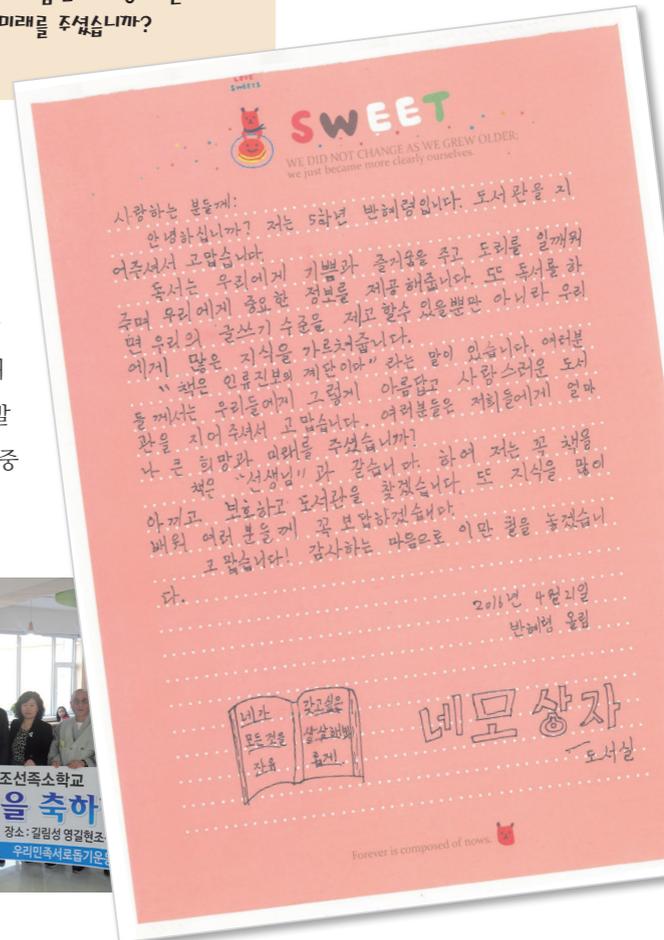
1933년 건립된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는 학생 80%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중국 내륙과 한국에서 부모님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족 사회의 축소는 민족 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보다 중국말을 더 많이 쓰는 환경 속 민족교육을 지켜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네모상자 도서관은 영길현 소학교 학생들의 민족교육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희망과 미래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학생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꽃의 향기 사람의 향기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을 참관하기 위해 한국의 방문단이 중국을 찾았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5일 개관식 당일 나흘동안 내리던 비가 뚝 그쳤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영길현교육국 간의 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도서관 구축에 관한 협약 체결 후 3개월 간의 시공을 거쳐 도서관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맑게 개인날 정식으로 결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방문단으로서 일정을 통해 조선족 사회와 학교 현장을 접한 서울시교육청 김시영 과장은 “영길현 소학교에서 받은 감사편지를 공문에 첨부해달라”며 일선 학교 선생님이 이 사업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서관시스템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족 학교 선생님의 고충을 듣고 “한국에 돌아가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조선족학교 현장이 지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자극한 것입니다. 영길현 소학교 김준애 교장 선생님은 환영사에서 “꽃의 향기는 바람이 전하고 사람의 향기는 마음이 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족 동포 사회에 대한 우리민족의 네모상자 도서관 지원 사업이 ‘사람의 향기’를 은은히 퍼트리고 있습니다.





책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를 알리다

수원에 위치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센터 사무실에는 주말에도 평일과 다름없이 사무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여러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다름 아니라 수원지역 '네모상자' 동아리 친구들의 봉사활동 덕분인데요. 이 친구들은 몇년째 중국 조선족학교에 한글도서 보내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책을 모으는 활동뿐만 아니라 모인 도서들을 깨끗하게 닦고 분류해서 상자에 포장하는 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으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소감을 확인해볼까요~?

임재량 _ 동원고 1학년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저 역시 많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러하듯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늘 봉사를 갈 때마다 매번 이수 시간을 채우기 위한 억지 봉사, 의미 없는 봉사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찾게 된 끝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대해 알게 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을 찾아간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중국, 러시아 등의 지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우리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 주시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어떤 일들을 하며, 제가 앞으로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내 작은 손길이라도

역사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해외 우리 민족인 고려인, 조선족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떠올라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해온 조선족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네모 상자' 도서관이 설립된 사진들도 보여주시고, 받은 책을 읽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 내가 작은 손길이라도 보탬이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많이 쌓여져 있고, 깨끗이 손질해야 할 오염된 책들도 있어 힘들기도 하였지만 곧 익숙해지니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해외로 보내질 책 박스에 들어갈 책의 순서, 이름, 지은이, 출판사, 시리즈 명, 바코드 등 책의 정보를 컴퓨터에 자세하게 적고 나서 상자에 넣는 일입니다. 단순하기도 하지만 책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민족의 동질감을 심어줄 수 있기에 정말 의미 있는 봉사라 생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꼼꼼하게 기록하고 박스 포장을 하는 것이 서툴렀지만 이제는 봉사를 꾸준히 하게 되면서 요령이 생겨서 그런지 지금은 공부할 때보다 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성인이 된다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 좀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남북 관계가 팽팽한 긴장 관계일수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같은 민간 기구의 보이지 않는 힘이 더욱더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도서지원 봉사를 더욱 성실히 해서 네모상자 도서 지원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민족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건태 _ 중앙대학교 동북아학과 박사수료



북한개발협력은 저의 전공입니다. 북한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은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 되는 것이라 믿었고 연구하였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개성공단을 왕래하며 남북관계 진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월 10일부로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며 남북경제협력의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기에 허탈감과 박탈감도 컸습니다.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더 이상의 남북관계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20주년을 맞이하였고 20년 백서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같은 인도지원 단체가 20년을 이어온 저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남북관계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백서 제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작업을 하면서 20년동안 축적된 자료를 꼼꼼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적대외식 속에 갇힌 남북간의 감정을 단순한 기부와 자선사업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동포애로 바꾸고, 국민적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저력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남북간의 암흑기 가운데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존재하고 존립해야 할 이유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한 시간동안 인도 지원을 통해 북한과 개발협력 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들을 배우고 고민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 수많은 연구를 통해 남북관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결국 지속하고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확신과 신념에 찬 사무처 식구들의 뛰는 발과 땀을 보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욱 연구에 매진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진행하는 사업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머리와 입으로만 떠드는 지식인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과 발이 함께 뛰는 지식인이 되고자 합니다. 또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처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감각을 키울 수 있었던 우리민족에서의 시간

김정은 _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국제학 대학원에서 국제협력을 전공하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저는 지난겨울 북한 주민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도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민족 식구들이 한 식구처럼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일하는 기간 동안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는 2개월 동안 저는 우리민족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민족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현 교과서 수거 사업과 네모상자 동아리 지원과 같은 다양한 국내 사업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국내 어린 학생들에게 현대 시민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는데, 이 경험으로 민간단체가 현대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지난 70

년간 이어온 분단과 현재 경직된 남북 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의 주요한 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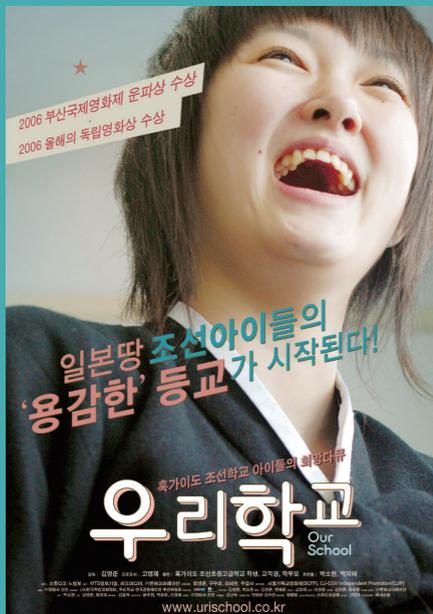
인턴 후기를 작성하며 느끼는 감정은 이번 인턴십을 통해 제가 얻게 된 것이 생각 이상으로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중 특히 값진 연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감각입니다. 저는 본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에는 세계 평화, 빈곤 퇴치 같은 항상 무언가 막연하고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NGO의 역할이나 사업에 대해 무척이나 이상적인 면만 추구하고 상상했다면 이제는 현실이라는 땅에 한 발 더딘 기분입니다.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일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번 인턴십으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더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제게 값진 기회를 주신 우리민족 사무실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가이도 조선학교 아이들의
희망다큐

우리학교

'우리함께' 세 번째 콘텐츠는 영화 <우리학교>이다.
조선학교의 일상을 통해 다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조선적 재일동포 사회를 바라본다.

강지현 기획홍보팀 간사



[혹가이도 조선학교 학생들이 민요 '분계선 코스모스'를 부르는 모습]

곱다고 보여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이하여 너는 여기에 피어났느냐
임진강 기슭에 새 하얀
코스모스 사랑살랑
남북을 오고 가는 그 바람에
설레고 싶어서 피어났느냐

조선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단 한 곡의 합창만으로도 이 영화를 볼 가치는 충분하다. 영화 <우리학교>는 일본 조선 학교에 대한 르포 다큐다. <우리학교>를 만든 김명준 감독은 일본 혹가이도 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 3년간 함께 생활하며 조선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일상을 기록했다. 이들에게는 비극적인 한민족 현대사가 축약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전쟁과 분단, 조국 없는 민족이 민족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한다.

정말로 너는 조선사람인가?

해방 직후 재일동포 1세대들은 우리말과 글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조선학교를 세웠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원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학교와 마찬가지로 이국에서 민족교육을 지켜가고 있다. 민족교육은 동포사회의 민족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하지만 조국이 없는 상태에서 민족성을 지키며 사는 것은 수많은 차별과 배제를 겪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기가 조선사람이라는 것이 싫었습니다.
되게.

“정말로 너는 조선사람인가”하고 일본 동무에게
말 받았을 때의 나는 ‘아니다’라고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감수성이 가장 풍부할 시기 친구들로부터 받아야만 했던 차별은 재일동포 2세 려실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조선학교는 일본사회에서 각종 차별과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일본 극우 단체들의 테러와 반대시위에 시달리고 있고,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조선학교를 일본의 정식 학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식적인 학교 졸업자격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대학 수험자격도 얻지 못한다. 조선학교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

핵심적 이유는 이들이 '조선적'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일본은 자국에 있는 한인에게 식민지 이전의 조선 국적을 부여했다. 그러나 남북 분단으로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조선 국적은 상징으로서 기호로서 남게 되었다. 한일수교 후 많은 재일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분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통일을 지향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조선 국적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조선적으로 남았다. 실질적으로 무국적자인 조선적 동포들은 차별로부터 보호해 줄 국가를 잃은 것이다.

한국도 내 나라요 북한도 내 나라요

그렇다면 조선적으로 남은 재일동포들은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일까? 재일동포 사회에는 남한을 고향으로 둔 동포들이 많다. 그러나 많은 조선적 동포가 북한을 조국으로 여긴다. 분단 후 재일동포 사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 해 원조비를 보내주는 북한에 비해, 남한은 기민정책과 각종 이데올로기 공세로 일관했고, 이러한 사실이 조선적 동포에게 고향은 남쪽이지만 자신들을 알아주고 위하는 조국은 북쪽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이다. 결국 한국 정부의 배제와 등한시가 재일동포의 아픔을 외면한 것이다.

재일동포 1세인 재훈이의 할머니는 재일동포 사회의 보통 사람들은 “한국도 가고 싶고... 한국도 내 나라요, 북도... 공화국도 내 나라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한국 사람들에게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데올로기와 대립을 넘어서 많은 재외동포들에게 남한과 북한은 똑같이 그리운 고향땅이었던 것이다. 남북이 이데올로기를 통해 대립하는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고통받는 우리민족이 있었다. 사실상 세계화의 흐름 속 민족 개념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하지만 온갖 차별과 배제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민족 개념은 그들을 지켜주는 공동체이자 울타리가 되었다. 려실이는 다시금 고백한다.



나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학교에 오고 동무하고 친하는 과정에
내가 왜 조선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살며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닌 조선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다면적인 정체성을 가지지만, 그 속에서 민족성을 지켜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적이거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제와 차별이 작동하는 사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사실이 아닐까?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1월

- 4일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
- 4일 신년모임 (부민옥)
- 5일~7일 학교과서 수거활동 (서울·경기도 중학교)
-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
- 6일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 도서 기증
- 7일 20년 백서 3차 집필진 회의
- 8일 긴급 비공개 라운드테이블
- 14일 수원 네모상자동아리 간담회

2월

- 1일 <북민협> 2016년 정기총회 (서울시청 태평홀)
- 2일 2월 상임위원회 (논산)
- 2일~19일 2월 학교과서 수거활동
- 12일 UN인구기금 간담회 (섬머셋호텔)
- 16일 평양 올리사지 석탑 반환을 위한 국회전사회 개막식 (국회 의원회관 1층 전시실)
- 26일 제78차 공동대표회의

3월

- 21일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3월 상임위원회
- 29일 '2015년 사업보고서' 발간
- 31일 제2차 백서발간위원회 전체회의 및 간담회 BaB 캠페인 물자지원 (중국 도문-온성)

4월

- 9일~30일 제6기 어린이평화축구교실 (용산 아이파크몰 풋살장)
- 12일 BaB 캠페인 물자지원 (중국 도문-온성)
- 27일 BaB 캠페인 물자지원 (중국 도문-온성)

5월

- 5일 중국 갈림성 영길현 조선족실험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준공식
- 18일 5월 상임위원회
- 25일 길음중학교 NGO 단체 탐방
- 28일 2016년 여성평화걷기대회 '여성의 힘으로 평화를' 공동주최 (임진각 일대)
- 28일~6월 8일 미국 달라스본부 방북

6월

- 1일 비전위원회 사무처 1차 워크숍
- 14일 제78차 공동대표회의
- 15일 6.15 공동선언 16주년 기념대회
- 17일 20년 백서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 해의 여정' 발간
- 21일 창립 20주년 기념식
- 23일 비전위원회 사무처 2차 워크숍
- 28일 중국 대북지원 NGO회의 (중국 연길)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11월, 12월,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성금 및 회비를 기탁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에 대한 복녜동포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 후원자명단이 누락되었거나 이상이 있을시 연락바랍니다.

| 2015년 11월 | 2015년 12월 | 2016년 1월 | 2016년 2월 | 2016년 3월 | 2016년 4월 | 2016년 5월 | 2016년 6월 |
|-------------|-------------|-------------|-------------|-------------|-------------|-------------|-------------|
| 김성민 5,000 | 이성주 10,000 | 이정숙 10,000 |
| 김성민 10,000 | 이성주 5,000 | 이정숙 5,000 |
| 김성민 20,000 | 이성주 10,000 | 이정숙 10,000 |
| 김성민 30,000 | 이성주 15,000 | 이정숙 15,000 |
| 김성민 40,000 | 이성주 20,000 | 이정숙 20,000 |
| 김성민 50,000 | 이성주 25,000 | 이정숙 25,000 |
| 김성민 60,000 | 이성주 30,000 | 이정숙 30,000 |
| 김성민 70,000 | 이성주 35,000 | 이정숙 35,000 |
| 김성민 80,000 | 이성주 40,000 | 이정숙 40,000 |
| 김성민 90,000 | 이성주 45,000 | 이정숙 45,000 |
| 김성민 100,000 | 이성주 50,000 | 이정숙 50,000 |
| 김성민 110,000 | 이성주 55,000 | 이정숙 55,000 |
| 김성민 120,000 | 이성주 60,000 | 이정숙 60,000 |
| 김성민 130,000 | 이성주 65,000 | 이정숙 65,000 |
| 김성민 140,000 | 이성주 70,000 | 이정숙 70,000 |
| 김성민 150,000 | 이성주 75,000 | 이정숙 75,000 |
| 김성민 160,000 | 이성주 80,000 | 이정숙 80,000 |
| 김성민 170,000 | 이성주 85,000 | 이정숙 85,000 |
| 김성민 180,000 | 이성주 90,000 | 이정숙 90,000 |
| 김성민 190,000 | 이성주 95,000 | 이정숙 95,000 |
| 김성민 200,000 | 이성주 100,000 | 이정숙 100,000 |
| 김성민 210,000 | 이성주 105,000 | 이정숙 105,000 |
| 김성민 220,000 | 이성주 110,000 | 이정숙 110,000 |
| 김성민 230,000 | 이성주 115,000 | 이정숙 115,000 |
| 김성민 240,000 | 이성주 120,000 | 이정숙 120,000 |
| 김성민 250,000 | 이성주 125,000 | 이정숙 125,000 |
| 김성민 260,000 | 이성주 130,000 | 이정숙 130,000 |
| 김성민 270,000 | 이성주 135,000 | 이정숙 135,000 |
| 김성민 280,000 | 이성주 140,000 | 이정숙 140,000 |
| 김성민 290,000 | 이성주 145,000 | 이정숙 145,000 |
| 김성민 300,000 | 이성주 150,000 | 이정숙 150,000 |
| 김성민 310,000 | 이성주 155,000 | 이정숙 155,000 |
| 김성민 320,000 | 이성주 160,000 | 이정숙 160,000 |
| 김성민 330,000 | 이성주 165,000 | 이정숙 165,000 |
| 김성민 340,000 | 이성주 170,000 | 이정숙 170,000 |
| 김성민 350,000 | 이성주 175,000 | 이정숙 175,000 |
| 김성민 360,000 | 이성주 180,000 | 이정숙 180,000 |
| 김성민 370,000 | 이성주 185,000 | 이정숙 185,000 |
| 김성민 380,000 | 이성주 190,000 | 이정숙 190,000 |
| 김성민 390,000 | 이성주 195,000 | 이정숙 195,000 |
| 김성민 400,000 | 이성주 200,000 | 이정숙 200,000 |
| 김성민 410,000 | 이성주 205,000 | 이정숙 205,000 |
| 김성민 420,000 | 이성주 210,000 | 이정숙 210,000 |
| 김성민 430,000 | 이성주 215,000 | 이정숙 215,000 |
| 김성민 440,000 | 이성주 220,000 | 이정숙 220,000 |
| 김성민 450,000 | 이성주 225,000 | 이정숙 225,000 |
| 김성민 460,000 | 이성주 230,000 | 이정숙 230,000 |
| 김성민 470,000 | 이성주 235,000 | 이정숙 235,000 |
| 김성민 480,000 | 이성주 240,000 | 이정숙 240,000 |
| 김성민 490,000 | 이성주 245,000 | 이정숙 245,000 |
| 김성민 500,000 | 이성주 250,000 | 이정숙 250,000 |

